

공공도서관 치매예방프로그램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Dementia Prevention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오선경 (Seon-Kyung Oh)**

초 록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 위험과 예방 중심 정책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모형을 개발·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수행하고, 대구시 공공도서관 치매예방프로그램 참여 노인 이용자 72명(대면)과 공공도서관 사서 153명(온라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이용자는 공공도서관 치매예방 서비스의 필요성 및 향후 참여 의향이 높고 프로그램 만족도와 권장 의향도 높게 나타나 수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참여 과정에서 신청 절차 및 홍보·접근성 측면의 개선 요구가 도출되었다. 사서는 서비스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프로그램 기획·진행과 이용자 커뮤니케이션의 부담을 크게 인식하며 자료서비스 중심의 운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용자와 사서 간 우선순위 차이를 반영하여 준비, 구성, 실행, 협력, 평가의 5단계 선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도서관(공간·자료·홍보·접근성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콘텐츠·강사·상담, 연계 지원)의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모형은 공공도서관 치매예방 서비스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표준화 및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propose an operational model for dementia prevention programs that public libraries can carry out in local communities, based on the increasing dementia risk in a super-aged society and the prevention-oriented policy stance. A literature review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analyses were conducted, and surveys were administered to 72 older adults (in person) who participated in dementia prevention programs at public libraries in Daegu and to 153 public librarians (online); the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indicate that older adults showed a high perceived need for dementia preven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and a high intention to participate in future programs, and that program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commend were also high, confirming acceptability. In contrast, during the participation process, needs for improvement were identified with respect to registration procedures as well as promotion and accessibility. Librarians likewise agreed on the need for the services, but tended to prefer resource-based services, perceiving substantial burdens related to program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nd communication with users. Reflecting these priority differences between older adults and librarians, this study proposes a collaborative model that allocates roles between libraries (space, resources, outreach, and accessibility support) and professional agencies such as Dementia Relief Centers (content, instructors, and counseling/referral support), based on a five-stage virtuous-cycle structure of Preparation, Design, Implementation, Collaboration, and Evaluation. This model is expected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dementia preven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an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their standardization and dissemination.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서비스, 치매예방, 노인서비스, 프로그램 모형, 치매예방프로그램
public library, library service, dementia prevention, senior services, program model, dementia prevention program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8080736).

**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조교수(oskpro@joongbu.ac.kr)

■ 논문접수일자: 2026년 2월 23일 ■ 최초심사일자: 2026년 3월 11일 ■ 게재확정일자: 2026년 3월 16일
■ 정보관리학회지, 43(1), 191-215, 2026. <http://dx.doi.org/10.3743/KOSIM.2026.43.1.191>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의 생애주기에 걸쳐 일상적인 삶과 함께하는 필수 문화시설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하이브리드 장서개발 충실화 및 지식정보서비스 확대, 계층별·주제별 프로그램서비스 다양화, 주민 포용적 시설·공간 제공에 주력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지식정보센터, 문화활동 거점, 평생학습 산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경제적 제약 등으로 정보 접근과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은 의학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노인의 치매 발병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약 21.2%(10,840,822명)로 UN이 정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에 진입하였고, 2024년 치매 상병자 수는 약 91만 명으로 무려 치매유병률¹⁾이 9.2%에 이르렀다.²⁾ 치매 치료와 돌봄은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 국가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치매정책이 2008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 동 법률에 근거한 네 차례의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선포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도서관법」 제1조와 제3조 제1항에서도 국민과 공중의 일원인 노인에게 각종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에서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2024)가 발표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지식정보의 공정한 접근 보장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해당 계획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의 양적 확대와 치매 예방 및 인지 재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명시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치매 서비스 확장의 구체적인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무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2019)이 마련한 「고령자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에 비해 그 내용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치매 환자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지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효과적인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에 실질

1) 치매유병률: 65세 이상(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 100명당 치매 환자 수

2) 치매오늘은 <<https://m.nid.or.kr/info/today.aspx?RC=020000014>> [2025.2.5.]

적으로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공공도서관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공공도서관 사서와 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행해진 공공도서관 치매예방프로그램 관련 지침과 연구의 경향 및 흐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수행하려는 공공도서관 치매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였다.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와 각국의 도서관협회(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ILIP(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JLA(Japan Library Association, 日本図書館協會) 등)가 발표한 치매 관련 지침과 추천 프로그램, 관련 기관의 활동 및 뉴스 등을 통해 치매 예방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둘째, 사례분석은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운영 방식, 효과성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적용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는 대구시 공공도서관 사서와 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 만족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

하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였다. 공공도서관 노인 이용자는 현재 대구시 Y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치매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Y도서관을 선택한 이유는 2017년부터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매주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2022년에는 치매안심도서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치매 정보자료 코너'를 마련하여 국내에서 간행된 치매 관련 대중서를 거의 구비하고 다양한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공공도서관 치매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IFLA(2007)의 『치매 환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과 치매예방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도출한 다음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교수 2인과 현장 경력 10년 이상의 사서 3인으로부터 검토를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문항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도서관 실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3개의 문항을 삭제·통합하였다. 또한 본조사 실시 전 노인 이용자 5인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문항의 이해도와 응답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응답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설문내용은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총 2개 항목으로 개인적 배경(성별, 직급, 근무경력), 공공도서관의 치매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필요성, 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방식, 협력 기관, 노인 프로그램 제공 시 어려움, 제한 사항 등)로 구성하였다. 공공도서관 노인 이용

자의 경우는 총 3개 항목으로 개인적 배경(성별, 나이), 프로그램 참여 및 만족도(프로그램 인지경로, 참여동기, 참여시 어려움, 만족도, 개선 및 보완점, 다른 친구나 지인에게 권장 의향 등), 공공도서관 치매예방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필요성, 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방식, 협력 기관, 참여 의향과 이유 등)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에서는 명목척도 및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요 항목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 필요성 및 인식도 항목의 Cronbach's α 계수는 0.842, 프로그램 선호도 및 만족도 항목은 0.876으로 나타나 사회과학 연구의 수용 가능한 신뢰 수준인 0.70을 상회하는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설문방법은 공공도서관 사서는 웹설문 조사 방식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온라인 설문방법(KSDCQS DB)으로, 공공도서관 노인 이용자는 대면 설문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국내 공공도서관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치매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치매 여부 또는 진행 상황을 진단하거나 약물을 처방하는 일은 전문성을 갖춘 병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사례는 연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기사, 학술논문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1.3 선행연구 개관

국내 공공도서관의 노인 대상 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용자의 요구 분석과 정책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배경재, 2021). 그러나 노인인구를 세분화하여 각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치매예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해진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치매 예방 활동이 노인의 인지기능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이지택, 2011; 선정주, 2012; 박종섭 외, 2015). 둘째, 구체적인 개입 방법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추수경 외, 2007; 한영란 외, 2010),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병희 외, 2011; 이윤정, 김신미, 2003), 음악치료 프로그램(김주영, 2015; 김혜경, 최재성, 2017), 그리고 색채놀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주현, 2015) 등이 활발히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보건, 복지, 의학,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치매예방프로그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보 및 문화 거점으로서 치매 예방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술적 논의와 실무적 모델 제시가 부족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기존 보건·복지 중심의 연구 성과를 도서관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서관 고유

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치매의 개념 및 특징

치매(dementia)는 뇌의 기질적 손상 및 파괴로 인해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적 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복합적으로 퇴화하는 임상증후군이다(박수정 외, 2020, 30). 이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며, 그중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치매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억력 및 언어 능력 저하,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감퇴, 성격 및 행동의 변화 등이 있으며, 이는 환자 개인의 삶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반에 막대한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초래한다.

국내 치매 환자 수는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946만 명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87만 명에 달하며, 추정 치매 유병률은 9.2%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 전 단계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MCI) 유병률은 무려 28.4%에 달해 조기 발견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환자의 중증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도 치매가 67.7%로 가장 많았고, 중등도 29.5%, 중증 2.8% 순으로 나타나 전체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비교적 초기 단계

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매는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국가 전체 치매 관리비용은 약 23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639만 원에 달해 가계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치매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외, 2024).

가장 큰 문제는 현재까지 치매의 근본적인 완치법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치매는 약물 및 비약물 치료를 통해 질병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고 현재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만이 가능하므로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하정화 외, 2015, 6). 따라서 발병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예방이 필수적이며,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실효성 있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이 강력히 요구된다(양수경 외, 2019, 132).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치매 예방 교육과 인지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2 국가적 차원의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치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8년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1

년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하여 치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질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존의 사후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치매 예방 중심의 선제적 관리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 및 포용적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핵심 추진 과제로는 전문화된 치매 환자 맞춤형 치료 및 돌봄 체계 구축,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 그리고 치매 관련 과학기술 및 정책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특히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그리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일반 노인 및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위한 인지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대국민 치매 예방 콘텐츠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치매안심센터 단독의 활동을 넘어, 보건소, 복지관,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치매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치매 정책의 흐름은 치매 관리가 단순히 의료적 개입에 국한되지 않고 노년층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예방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

다. 이는 곧 지역사회의 보편적 지식·문화 거점인 공공도서관이 국가적 치매 예방망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책적 당위성을 제공한다.

2.3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치매 예방

공공도서관은 과거 정보 제공의 기능에서 벗어나 평생학습 지원, 문화적 참여 촉진,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공공도서관은 초고령 사회의 주요 사회적 과제인 치매 예방 및 인지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적 거점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와 노인복지관이 직접적인 돌봄에 주력한다면,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장서를 활용하여 인지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 세대 소통의 장으로서 노인들이 치매라는 낙인감 없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도서관의 변화와 역할 확대는 관련 법령 및 국가 계획 등 정책적 근거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다. 「도서관법」 제1조와 제3조는 모든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6조에서는 노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도서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의

확대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풍부한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여 치매 예방 및 인지 재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토대를 제공한다.

해외 도서관계에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치매 환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을 통해 정보 접근성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도서관들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도서관이 치매 친화적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치매 친화적 도서관(Dementia Friendly Libraries)’ 모형을 운영하며, 사회적 교류를 위한 메모리카페, 인지 자극용 인지 학습 키트, 음악과 기억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sconsin Alzheimer’s Institute, 2017).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정책적 기조에 발맞추어 도서관이 지역사회 내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의 공간적 인프라와 전문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함으로써 치매 예방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기관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주민의 건강

한 노후를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도서관 서비스 모형 정립이 요구된다.

3. 공공도서관 치매예방프로그램 사례분석

3.1 해외 공공도서관 사례분석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2007년 10월 『치매 환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ersons with Dementia)을 발간하여 치매 환자의 인지 자극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이 지침은 도서관 서비스와 자료가 치매 환자의 기억 소환 및 정서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치매 중기 단계의 환자라도 적절한 정보서비스와 독서물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물리적 환경 조성, 적응형 자료(쉬운 읽기 자료 등) 구비, 사서의 전문 소통 기술 함양,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미국도서관협회(ALA, n.d.)는 『알츠하이머 및 치매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Library Services for Patrons with Dementia/Alzheimer’s)를 운영하여 현장 사서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들은 인지 자극을 돕는 ‘회상 키트(Reminiscence Kits)’ 보급,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메모리 카페(Memory

Cafés)’ 운영,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테일즈 앤 트래블(Tales & Travel)’ 등 다중 감각을 자극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본도서관협회(JLA, 2016) 역시 2016년 IFLA의 지침을 수용하여, 이를 국가적 차매 정책인 『신오렌지 플랜(New Orange Plan)』 및 『치매기본법』과 연계하여 도서관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일환이다. 구체적 실천 사례로 치매 당사자를 위한 전용 정보 코너 조성, 지역 주민이 함께 교류하는 ‘치매 카페(Dementia Café)’ 운영 등이 있으며, 고령 이용자의 급증에 대비해 사서들을 대상으로 ‘치매 서포터(Dementia Supporter)’ 교육을 실시하여 치매 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치매 대응 전략인 ‘치매 챌린지(Dementia Challenge)’와 연계하여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ILIP)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모델은 도서관을 보건의료 시스템과 결합하여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한다. 알츠하이머 협회(Alzheimer’s Society)와 협력하여 ‘치매 친화 도서관(Dementia Friendly Libraries)’ 가이드라인 및 표준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며 전국의 모든 도서관이 준수해야 할 『공통 건강·복지 서비스 표준』(Universal Health and Wellbeing Offer)에 치매 지원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품질의 치매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전

문가가 인증한 도서 목록을 활용하는 ‘읽기 처방(Reading Well for Dementia)’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와 정서적 지원을 돕는 선도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의 과거 기억을 자극하는 실물 자료 꾸러미인 ‘회상 상자(Reminiscence Boxes)’ 대출을 비롯해, 지역 내 치매 환자들이 함께 모여 시와 소설을 소리 내어 읽고 대화하는 ‘더 리더(The Reader)’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는 물론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McNicol, 2023).

해외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한 사례를 IFLA (2007) 지침에서 제시한 환경 조성, 자료 구비, 프로그램 운영의 다각적 측면을 반영하여 자료, 공간, 프로그램, 교육, 아웃리치의 5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2 국내 공공도서관 사례분석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과 연계하여 공공도서관의 치매 대응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9년 『고령자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노인 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표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운영 형태는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지정되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모델이다. 해당 도서관들은 내부에 독립된 ‘치매도서관 코너’를 조성하여 전문 서적과 예방 홍보물을 비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전달하고 조기 검진을 독려하는 정보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도서관 종사자가

〈표 1〉 해외 공공도서관 치매예방 서비스 및 프로그램 사례

구분		내용	비고
자료	Betsie Valley District Library	•추억치료 패키지(DVD, 사진·활동카드 등) 대출 및 상호작용형 인지 게임(Tovertafel) 제공	미국
	Fife Library	•회상 꾸러미(Reminiscence Packs): 기억을 자극하는 사진, 감각 자료, 기념품 등 대출	영국
	Schenectady County Public Library / Rochester Public Library	•Memory Care Collection: 동물, 여행, 과거 역사 등 시각적 그림이 많은 특화 도서 제공 •인형, 피젯(fidget) 장난감, 감각 활동 퍼즐 등 치매 환자의 인지 유지를 돕는 보조 교구 구비	미국
	Ellsworth Public Library	•치매 환자와 간병인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간병인 키트(Caregiver Kits) 제작 및 제공	미국
공간	Boldon & Cleadon Community Library	•메모리 카페(Memory Café):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벗어나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제공 •치매 환자 친화적 구조 및 표지판 제공, 전담 직원을 통한 지역 복지 혜택 정보 상담	영국
	Library Memory Project	•Waukesha 및 Milwaukee 카운티 내 여러 공공도서관이 연합하여 매월 도서관을 순회하며 메모리 카페(Memory Cafe) 공동 개최	미국
프로그램	Gail Borden Public Library	•Tales & Travels: 모의 세계 여행 프로그램, 여권, 지구본, 영상 등을 활용해 인지를 자극하며 대화와 표현을 장려	미국
	Westmount Public Library	•몬트리올 알츠하이머 협회와 협력하여 'Tales and Travel Memories' 진행 - 테마별 간식과 비디오 시청이 결합된 5주 단위 기억 회상 세션 운영	캐나다
	Forsyth County Public Library / Ela Area / Baxter County Library	•Golden Hour / Read-a-Loud: 노래, 율동 등 다중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 및 치매 환자를 위한 소리 내어 읽기 프로그램 진행 •매일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잊혀진 이야기(Forgotten Tales)' 시간 운영	미국
교육	Library Center in Springfield	•알츠하이머 이해 교육: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10가지 경고 신호, 의사소통 방법, 법률 및 재정 계획 등을 교육	미국
	Northeast Ohio Regional Library	•Dementia Live: 특수 안경과 헤드폰을 착용하여 치매 환자의 감각 장애를 직접 시뮬레이션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 •사서 대상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도서관을 치매 친화적 안전 구역(Safe Zone)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 교육	미국
아웃리치	Springfield-Greene County / Pima County Public Library	•알츠하이머 협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아웃리치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기억 키트: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사회의 요양원 및 보호시설로 기억 키트를 직접 지참해 방문하는 아웃리치 전개	미국
	St. Charles Public Library	•지역 내 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치매 환자를 위한 음악 콘서트 및 싱어롱 (Sing-along) 활동 진행	미국

치매파트너(Dementia Partner) 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 적인 응대 역량을 기르고 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

를 위해 독서 치료, 회상 요법, 원예 활동 등을 결합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도서관은 노년층 대상의 독서 토론 프로그램인 '독서정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통과 인지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용학도서관과 강남구립못골도서관 등은 그림책, 음악, 원예 등을 매개로 한 예술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정서적 안정과 기억력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도서를 배달하는 아웃리치 서비스와 대활자본 및 독서 확대기

배치를 통한 정보 접근성 보장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주요 운영 사례를 자료, 공간, 프로그램, 교육, 아웃리치의 5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다만, 국내의 경우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상시 교류할 수 있는 전용 사교 공간(메모리 카페 등) 운영 사례는 아직 미비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2> 국내 공공도서관 치매예방 서비스 및 프로그램 사례

구분		내용
자료	디펜시아도서관	• 국내 출판된 치매 관련 도서(역사, 예방, 치료, 수기 등) 및 간행물, 홍보물 총망라 비치
	수정도서관	•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하여 집중력 향상 색칠공부용 그림책 및 큰글자도서 배포
	도봉도서관	• 치매 예방 정보 및 관련 도서를 소개하는 북 큐레이션 진행
프로그램	서울도서관	• 독서정담(讀書情談): 어르신 치매예방 정기 독서토론 프로그램
	용학도서관	• 책 읽기, 노래 부르기, 악기 활동, 실버 제조가 결합된 신바람 나는 행복 노년, 노년의 행복을 찾아가는 책놀이 음악놀이 등 운영
	강남구립못골도서관	• 치매예방을 위한 그림책 예술케어: 그림책을 매개체로 잊혀있던 기억을 회상하는 예술케어 및 북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범어도서관	• 책으로 떠나는 행복기억여행: 경증치매노인대상 북테라피 프로그램 + 북테라피활동가 양성과정 - 독서치유 재능기부자 양성
	송파도서관	• 날아라 실버보드: 보드게임을 활용한 치매예방
	청덕도서관	• 엄마아빠 전성시대: 우리가족짜깁 힐링데이 - 도예 체험, 나만의 책 만들기, 치매예방 교육 및 인지활동 꾸러미 제공
	미사도서관	• 다양한 예술치료사와 함께하는 미사동행시 작품 전시회 개최
교육	고양시립한피도서관	• 치매 관련 도서 작가와의 만남(북토크) 및 돌봄 종사자 초청 특강
	파주중앙도서관	•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강사를 초빙한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예방교육 실시
	원지공원도서관	• 치매 돌봄 전문가가 직접 들려주는 진짜 치매 이야기 강연 및 시민 인식 개선 교육
	용학도서관	• 노년은 아름다워 - 전문가 초청 강연
아웃리치	대구북부도서관	• (주)KT,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IT 활용 기억청춘교실 공동 운영
	부산시립구포도서관	• 보건소와 협력해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에 도서관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힐링 캘리그라피 진행
	용학도서관	•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도서관 내에 치매 조기 검진 및 건강 상담 부스 설치, 홍보캠페인 실시
	도봉도서관	•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독서원예치료 프로그램, 치매 상담 및 선별 검사, 체험 부스 등 진행
	서울도서관	• 중구 어르신건강증진센터와 업무 협력을 통해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사후 치매 인식도 검사와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3.3 국내외 사례 비교 및 시사점

국내의 공공도서관의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서비스의 지향점과 운영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해외의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을 단순한 정보 제공처가 아닌 지역사회 참여와 보건·복지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사회 보건 기관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치매 환자와 간병인이 직면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환자와 보호자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며 교류할 수 있는 '메모리 카페(Memory Café)' 형태의 특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또한 다중 감각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돕는 '회상 키트(Memory Kits)' 등의 전문 교구를 활용하며,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전담 직원 교육과 지역 자원봉사자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즉, 접근성과 형평성을 확대하여 치매 환자 역시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그룹 활동에 기여하고 즐길 수 있는 능동적 참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공도서관의 치매예방 서비스는 주로 치매 관련 도서 제공이나 일방향적인 정보 코너 설치 등 물리적 인프라 제공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교류나 다양한 인지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측면에서는 해외 사례에 비해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되는 도서관 프로그램 역시 일반적인 노인 대상의 문화 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치매 예방 및 관리에 특화된 전문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도서관이 실효성 있는 치매 예방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도서관 공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도출된 구체적인 시사점과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특화 자원의 개발 및 보급이다. 단순한 관련 도서 제공을 넘어 국내 노년층의 문화적 배경과 정서에 부합하는 한국형 '회상 키트'를 개발·제작하여 도서관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둘째, 치매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사회적 포용의 확대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 간병인 등 보호자들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메모리 카페'와 같은 안전하고 친숙한 공간을 도서관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지지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셋째,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능동적 아웃리치 서비스 도입이다. 일반 노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간병인을 각각의 대상으로 세분화한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능동적 아웃리치 서비스의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사회 연계망의 실질적 구축이다. 공공도서관 단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등 전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치매 예방 및 통합 돌봄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공도서관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공공도서관 치매예방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제 수요자인 대구시 Y도서관 치매예방프로그램 참여 노인 이용자와 공급자인 대구시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거쳐 처리되었다.

4.1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및 서비스 요구 분석

대구시 Y도서관의 치매예방프로그램인 '신바람 나는 행복 노년'과 '신노년(新老年) 포럼' 강좌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6일간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사서가 문항을 안내한 후 참여자가 현장에서 즉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이 어려운 경우 사서가 문항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보조하였다. 그 결과 총 72부를 회수하였고 문항 미응답이 없는 유효응답 7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프로그램 참여 현황

설문에 응답한 노인 이용자의 성별은 여성이 63.9%(46명)로 남성 36.1%(26명)보다 다소 많았다. 연령대는 65~69세가 37.5%(27명)로 가장 많았고, 70~74세가 30.6%(22명), 60~64세가 22.2%(16명), 75~79세가 5.6%(4명), 80

세 이상이 4.2%(3명)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알게 된 인지 경로로는 '도서관 홍보물'이 33.3%(24명)로 가장 높았고, '도서관 게시판' 27.8%(20명), '가족 및 지인' 15.3%(11명), '도서관 홈페이지' 11.1%(8명), '대중매체(신문, 소식지 등)' 8.3%(6명), 기타 4.2%(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에는 수성소식지, 구청 책자 등이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동기로는 '관심과 흥미가 있어서'가 42.3%(3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33.8%(24명),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 19.7%(14명), '무료해서' 2.8%(2명), '새로운 만남과 교류를 위해서' 1.4%(1명)가 뒤를 이었다. 이는 노년층의 지적 호기심과 건강 증진 욕구가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의 주요 동인임을 보여준다.

4.1.2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참여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33.8%(22명)가 '어려움 없음'이라 답했으나, '프로그램 신청 어려움(온라인 신청 등)'을 호소한 비율이 26.2%(17명)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가 확인되었다. 그 외 어려움으로는 '도서관에 오기 힘들' 18.5%(12명), '홍보 부족' 16.9%(11명), '주차 어려움' 3.1%(2명), '프로그램 내용 어려움' 1.5%(1명) 순이었다.

향후 프로그램의 개선 및 보완점으로는 '프로그램 홍보 강화'와 '내용 충실성'이 각각 28.3%(13명)로 가장 높은 개선 요구를 보였으며, '참여자를 위한 배려' 17.4%(8명), '프로그램 시간 조정' 13.0%(6명), '담당자(강사, 사서) 전문성' 8.7%(4명), '없음' 4.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6.1%(매우 만족 41.7%,

만족 44.4%)로 대단히 높게 평가되었으며, 보통은 12.5%, 매우 불만족은 1.4%에 불과했다. 또한 타인이나 지인에게 프로그램을 권장할 의향 역시 91.7%(적극 권장함 51.4%, 권장함 40.3%)에 달해(보통 6.9%, 전혀 권장하지 않음 1.4%) 참여자들의 정서적 효능감과 실질적 만족감이 상당히 높음을 입증하였다.

4.1.3 치매예방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공공도서관이 치매예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0.3%(매우 그렇다 38.9%, 그렇다 51.4%)가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보통 5.6%, 그렇지 않다 2.8%, 전혀 그렇지 않다 1.4%), 향후 관련 프로그램 제공 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95.8%(적극 참여함 48.6%, 가능한 참여함 4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바라는 치매예방 서비스(복수응답)는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이 63.9%(46명)로 가장 많았고, '치매 관련 자료서비스' 48.6%(35명), '치매 조기 검진서비스' 45.8%(33명), '어르신 친화형 공간 제공' 33.3%(24명), '가족 및 간병인 대상 교육 제공' 19.4%(14명) 순이었다.

희망하는 치매예방프로그램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인지행동 프로그램(낱말 맞추기 등)'이 54.2%(39명)로 가장 선호되었으며, '독서프로그램' 52.8%(38명), '스마트폰 및 컴퓨터 교육' 50.0%(36명), '음악활동 프로그램'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각각 43.1%(31명), '미술(색채)놀이 프로그램' 37.5%(27명), '과거나누기, 추억나누기' 23.6%(1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복수응답)은 동적

인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이 68.1%(49명)로 가장 높아, '전문가 강의(강좌)형 프로그램(58.3%, 42명)'이나 정적인 '치매예방 관련 자료 제공(33.3%, 24명)'보다 우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협력 기관(복수응답)으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각각 37.5%(27명)로 가장 높은 신뢰를 얻었으며, '치매안심센터' 33.8%(24명), '사회복지시설' 27.8%(20명)가 그 뒤를 이었다.

4.2 사서 인식도 조사 분석

대구시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총 2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3명이 응답하였으며 결측치 없이 유효응답 153부를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인구통계적 특성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인식

설문에 참여한 사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56.3%(86명)로 남성 43.7%(67명)보다 다소 많았다. 근무경력은 '5년 미만'과 '5~10년'이 각각 26.0%(4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1~15년' 22.9%(35명), '16~20년' 13.5%(21명), '21~25년' 6.3%(10명), '26년 이상' 5.2%(7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7급이 37.5%(57명)로 가장 많았으며, 6급 28.1%(43명), 8급 18.8%(29명), 9급 10.4%(16명), 5급 5.2%(8명) 순으로 분포하였다.

공공도서관이 치매예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서의 65.6%(매우

그렇다 25.0%(38명), 그렇다 40.6%(62명))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보통'은 31.3%(48명), '전혀 그렇지 않다'는 3.1%(5명)에 불과하였다.

4.2.2 치매예방 서비스 및 프로그램 선호도

사서들이 도서관에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순위별 가중치(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각 응답자에게 항목별로 1~3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가중치 합을 통해 상대적 우선순위를 비교하였다.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는 '치매 관련 자료서비스(37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나, 수요자인 노인 이용자가 최우선으로 요구했던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296점)'보다 도서관 고유의 정보 제공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 '어르신 친화형 공간 제공(100점)', '치매 조기 검진서비스(91점)', '가족 및 간병인 대상 교육 제공(48점)'이 뒤를 이었다.

우선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가중치 분석에서도 사서들은 전통적인 '독서프로그램(339점)'을 가장 선호하였다. 반면 이용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148점에 그쳤으며, '과거나누기·추억나누기(134점)', '스마트폰 및 컴퓨터 교육(115점)', '신체활동 프로그램(83점)', '미술(색채)놀이 프로그램(72점)', '음악활동 프로그램(24점)' 순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치매예방 서비스 제공방식 또한 동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정적인 '치매예방 관련 자료 제공(100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참여·체험형 프로그램(96점)', '전문가 강의(강좌)형 프로그램(8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서 집

단이 치매예방 서비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서관의 역할 범위를 자료·정보 제공 중심으로 설정하려는 실무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4.2.3 프로그램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협력체계

노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사서들이 직면하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2순위 가중치(1순위 2점, 2순위 1점)로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148점)'과 '어르신과의 커뮤니케이션(143점)'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홍보'와 '강사 섭외'가 각각 53점, '어려움 없음'이 29점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식 자유 의견 응답에 따르면, 사서들은 치매 대상자를 도서관에서 직접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의료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신체 및 인지 치료 활동은 노인복지센터나 의료기관의 역할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효과적인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독서뿐만 아니라 신체 및 미술 활동 등이 동반되어야 하나, 자칫 운동, 취미, 요가 등 도서관의 본질과 거리가 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노인복지센터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본연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책과 연계한 독후 활동이나 공간 기획,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 치매 예방을 위한 뇌 활동 및 뇌 훈련의 일환으로 책과 연계한 다양한 독후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제공과 진행은 연계된 외부 전문가에

게 맡기고 도서관은 공간 기획 및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망을 구축하고 치매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올바른 지향점일 것이다.

이러한 실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협력 기관(2순위 가중치)으로는 실질적인 행정 연계 및 전문 인력 지원이 용이한 '치매안심센터(196점)'가 1위를 기록하였다. 이어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소'가 각각 115점, '의료기관'이 3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 치매예방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업무 분담 및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상에서 분석한 공공도서관 노인 이용자와 사서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항목별 우선순위를 비교한 결과,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뚜렷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공공도서관이 치매예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노인 이용자(90.3%)와 사서(65.6%)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양측 모두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 이용자의 긍정 응답 비율이 사서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수요자 측면에서 도서관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비스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유형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시각차가 나타났다. 노인 이용자는 도서관이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치매 예방프로그램 제공'을 최우선 서비스로 요구하

였으며, 실질적인 예방 효과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중 감각 기반의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였다. 반면, 실무적 부담을 안고 있는 사서는 도서관 고유의 업무 영역인 '치매 관련 자료 제공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프로그램 유형에 있어서도 도서관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운영 부담이 적은 '독서 프로그램'을 1순위로 응답하여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프로그램의 제공 방식과 협력 기관 선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상이했다. 노인 이용자는 동적이고 상호작용이 활발한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선호한 반면, 사서는 상대적으로 정적인 '치매예방 관련 자료 제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서들이 노인복지관 등 타 기관 프로그램과의 역할 중복 우려 및 도서관 내부 인력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방어적 기제로 해석된다. 또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파트너에 대해 노인 이용자는 치매 검진 및 치료 측면에서 의료적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가장 신뢰하였으나, 사서 집단은 치매 파트너 교육 및 강사 연계 등 실무적인 행정 협력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수월한 '치매안심센터'를 최적의 협력 기관으로 지목하였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의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이용자와 사서 모두 그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방향, 제공 방식, 협력 기관 등 구체적인 접근법에서는 뚜렷한 간극이 존재한다. 노인 이용자는 체험 중심의 적극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반면, 사서 집단은 업무 과중과 도서관 정체성 혼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료 중심의 보수적인 역할을 선호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양측의 간극을 좁히고 이용자 만족도와 실현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성공적인 도서관 치매예방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공간 인프라 조성 및 자료 큐레이션, 홍보를 전담하고 외부의 '치매안심센터'가 전문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과전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형 협력 모형'의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5. 공공도서관 치매예방프로그램 모형개발

국내의 공공도서관의 치매 관련 서비스·프로그램 사례분석 결과와 사서 및 노인 이용자 대상 인식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환경에 적용 가능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모형을 제안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국내 공공도서관의 치매예방 서비스는 치매 관련 자료 제공이나 정보 코너 설치 등 물리적 인프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사회적 교류 및 다양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해외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인식도 조사에서 노인 이용자는 공공도서관 치매예방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참여 의향 및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 과정에서는 온라인 신청 등 디지털 기반 절차의 장애와 홍보, 접근성 측면의 개선 요구가 확인되었다. 사서 역시 서비스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프로그램 기획·진행과 이용자 커뮤니케이션을 주요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체험·인지활동을 선호하는 이용자와 자료서비스·정체성 중심의 사서 간의 우선

순위 간극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공공도서관이 단독으로 전문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서관의 강점(공간·자료·접근성·홍보)을 기반으로 하되,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보건기관의 전문역량(콘텐츠·강사·상담·연계)을 결합하는 협력체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프로그램의 준비부터 구성, 실행, 협력, 평가에 이르는 5단계 선순환 구조로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입력(자원), 활동(운영), 산출물(문서·성과물),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1) 준비단계: 수요 분석 및 전문성 강화

준비단계는 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로 지역사회 노년층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수요 분석과 도서관 내부의 인적·물리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90.3%가 도서관의 치매 서비스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95.8%가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령층은 온라인 신청 등 디지털 기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참여·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디지털 접근성, 이동·교통, 정보 접근 경로 등)을 함께 진단하여 접수 방식은 온라인에 한정하지 않고 전화·방문 접수, 현장 안내 인력(직원, 자원봉사) 배치, 큰 글자 안내문 및 간편 신청서 등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또한 홍보는 실제 접근 경로를 반영하여 도서관 홍보물·게시판 중심의 고정 채널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소식지·구청 책자 등 외부 채널과 협력기관 네트워크 홍보를 결합하여 접근 범위를 확장한다.

〈표 3〉 5단계 선순환 운영 모형

구분	내용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력: 담당 사서/지원 인력, 프로그램 예산, 운영 공간(저층부 우선), 기본 자료(치매 정보자료·큰글자자료·회상자료 등), 협력기관 연락체계 •활동: 지역 수요조사(대상·장애·선호), 접수/홍보 채널 설계(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담당자 교육(치매 파트너 등), 치매친화 환경 점검(동선·사인·소음·조도) •산출물: 운영계획서(대상·목표·회기·예산·안전), 접수·홍보 운영안, 담당자 교육 이수 기록, 공간·환경 점검 체크리스트 •성과지표: 모집 대비 등록률, 오프라인 접수 비율, 교육 이수율, 홍보 도달(게시/배포 횟수)
구성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력: 사례분석 결과, 이용자·사서 선호 데이터, 협력기관(치매안심센터 등) 콘텐츠 지원 •활동: 모듈형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설계(인지행동/독서·회상/문화예술·다중감각/디지털역량/돌봄자 지원), 난이도·대상 트랙(예방군/경도인지저하·초기/돌봄자) 구성, 회기별 활동 설계(시간·도구·진행안), 자료·교구 운영규정(대출·위생·분실) •산출물: 커리큘럼(회기별 목표·활동·준비물), 자료·교구 목록(회상카드 포함), 대상별 트랙 운영안, 안전·응급 대응 절차(현장) •성과지표: 회기 구성 적합도(피드백), 난이도 적정성, 강사 확보율, 준비물 충족률
실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력: 확정된 커리큘럼, 운영 인력, 공간, 홍보물·안내문, 접수 시스템 •활동: 회기 운영(체험형 중심), 참여자 관리(출석·상담 필요시 안내), 접근성 보완(전화/방문 접수, 현장 안내 인력), 운영기록 추적 •산출물: 회기별 운영일지(참여·활동·이슈), 출석/중도탈락 기록, 참여자 피드백(3문항), 사례 기록 •성과지표: 출석률, 중도탈락률, 재참여 의향, 불편요인(접수/동선/시간대) 발생률
협력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력: 협력기관 네트워크(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협약 문서, 공동 홍보 채널 •활동: 역할분담(RACI) 확정, 강사 파견·교육 콘텐츠 제공, 상담/선별 및 지역 자원 연계(필요시), 공동 홍보 및 대상자 연계(복지관·경로당 등) •산출물: 협약(MOU), 강사·콘텐츠 지원 계획, 연계 프로토콜(안내·예약·의뢰), 공동 홍보 계획 •성과지표: 협력기관 참여 수, 강사 지원 횟수, 연계(상담/검진 안내) 건수, 공동 홍보 실적
평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력: 운영데이터(참여·출석·접수), 만족도·피드백, 협력 성과자료 •활동: KPI 산출, 만족도/권장 의향 및 개선 요구 분석, 분기 단위 환류회의(도서관+협력기관), 차기 운영안 개정 •산출물: 평가보고서(지표+정성), 개선 체크리스트(접수/홍보/내용), 차기 프로그램 운영계획 •성과지표: 만족도, 권장 의향, 접근성 지표 개선(오프라인 접수 확대 등), 프로그램 지속 운영률

둘째, 전문성 강화는 담당 사서의 심리적·실무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사서의 65.6%가 프로그램 기획·진행 및 커뮤니케이션 등 실무적 전문성 부족을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 사서는 치매 관련 기본 교육(중앙치매센터의 ‘치매 파트너’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전문 응대 역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응대 원칙, 응급상황 대응, 상담·의료기관 연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의 최소 조건을 반영한다. 즉,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명확한 안내 표지, 이동 부담을 줄이는 저층부 공간 확보, 접근이 쉬운 동선 설계, 적절한 조도·소음 관리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 최소 조건을 반영한다.

(2) 구성단계: 인지 자극 및 다중감각 서비스 설계
구성단계는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구체

화하는 단계로 도서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자의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콘텐츠를 배치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을 총 5개 모듈로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자료·정보 모듈(치매 정보 코너, 큰글자자료, 큐레이션, 회상자료 제공), 독서·회상 모듈(함께 읽기, 낭독, 기억 회상 대화), 인지행동 모듈(낱말 맞추기, 퍼즐, 보드게임 등 난이도 조절), 디지털 역량 모듈(스마트폰·컴퓨터 기초, 공공서비스 앱 활용), 문화예술·다중감각 모듈(음악·미술·가벼운 신체활동 결합)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참여 대상은 예방 중심의 일반 노년층, 경도인지저하·초기 단계 이용자, 가족·돌봄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기 시간, 상호작용 방식, 자료 난이도, 진행 속도를 차등 설계한다. 이와 같은 모듈형 설계는 도서관별 자원 차이에도 유연하게 적용되며, 협력기관의 지원 범위에 따라 모듈 조합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54.2%가 선호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낱말 맞추기, 퍼즐, 회상 활동 등 인지기능 유지·자극 활동을 구성하고 도서관 고유 자원인 치매 특화 도서와 큰글자도서를 활용한 '함께 읽기' 활동을 병행하여 독서 기반 자극을 강화한다. 아울러 단순 강연형을 넘어 참여·체험 중심의 운영 방식을 강화하여 이용자가 직접 수행하는 비중을 높인다.

셋째,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교류 요소를 체계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의 동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신체 활동과 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요소(음악·미술 등)를 병행 배

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 완화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의 중요한 성과이므로 영국의 '메모리 카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보호자와 참여자가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교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치매 환자가 직면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교구의 관리체계를 사전에 표준화해야 한다. 회상 키트, 감각 자극 자료, 시청각 기반 활동 자료 등 해외 사례에서 검증된 도구를 참고하되, 국내 도서관 상황에 맞춘 대출·이용·위생·분실 관리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3) 실행단계: 현장 운영과 접근성 보완

실행단계는 설계된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며 참여 과정에서 드러나는 운영의 질과 접근성 문제를 즉각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단계이다. 첫째, 신청·접수는 온라인 방식만으로 고정하지 않고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병행하여 디지털 소외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방문·전화·대리신청 등 다양한 접수 방식을 제공하고 현장 등록 보조(직원·자원봉사자 안내), 큰글자 안내문, 간편 신청서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단순화한다.

둘째, 홍보는 이용자가 실제로 인지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고정 채널과 외부 채널의 결합 구조로 설계한다. 즉, 도서관 내부 홍보물·게시판 중심의 고정 채널을 기본으로 하되, 구청·지역 소식지, 보건기관(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네트워크, 지역 복지기관 채널 등을 결합하여 접근 범위를 확장한다. 또한 모집 성과를 높이

기 위해 회기 시작 전에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고 협력기관의 대상자 연계(복지관, 경로당 등)를 운영 절차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이동이 어려운 참여자를 고려하여 시간·동선·교통 요소를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필요시 아웃리치 운영을 실행 매뉴얼에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간대 다양화(오전, 오후), 주차 안내,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도서관 방문을 전제한 참여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도록 요양원·복지기관 등으로의 아웃리치 운영 가능성을 마련한다.

넷째, 회기 운영은 참여·체험형을 기본으로 하되, 회기별 목표와 활동을 명확히 제시하고 즉각 환류가 가능하도록 표준 기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회기별 목표(인지·정서·사회적 교류)와 활동(읽기, 회상, 게임·퍼즐, 예술활동 등)을 사전에 명시하고, 회기 종료 시 난이도·흥미·불편사항을 확인하는 3문항 피드백과 만족·참여 의향을 간단히 기록하여 다음 회기에 즉시 반영한다.

다섯째, 참여자의 인지·디지털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동일 활동이라도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난이도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 내용 충실성과 참여자 배려 요구를 반영하여 설명 시간 단축, 시범 강화, 보조자료 제공, 1:1 보조 배치 등으로 진행을 조정하고 초급·중급 등 난이도 선택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운영일지(회기별 목표, 진행 내용, 참여 반응, 이슈)를 표준 양식으로 축적하여 차기 프로그램 설계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4) 협력단계: 역할 분담형 유관기관 공조 협력단계는 도서관 단독 운영의 한계를 보완

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첫째, 협력의 기본 축은 도서관과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공조를 중심으로 한 역할 분담형 협력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도서관은 접근성이 높은 공간 인프라 제공, 회상 키트 등 정보자원의 보급, 홍보·접수·이용자 커뮤니케이션 및 현장 운영을 주관하고, 치매안심센터는 전문 콘텐츠 기획, 강사 지원, 필요시 상담·선별 및 지역 자원 연계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은 사서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는 프로그램 기획·진행과 노인 대상 커뮤니케이션 부담을 구조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협력기관은 치매안심센터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기관·보건소·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다층화하되, 각 기관의 강점을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예컨대 도서관은 문화·정보·학습 기반 서비스(자료·공간·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보건기관은 건강·인지교육·상담(선별) 및 지역 보건서비스 연계 중심으로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 신뢰가 높은 의료기관·보건소 협력은 연계 채널(검진·상담 안내, 예약, 의뢰)로 포함하여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보건소, 의료기관(건강·검진 연계)의 이원 협력 구조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협력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문서화되어야 하며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전 <표 4>와 같이 역할 분담표를 마련하여 수요조사·홍보, 커리큘럼·강사, 접수·참여지원, 상담·선별·연계, 평가·환류 등 핵심 업무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접수·홍보·현장 운영

〈표 4〉 역할 분담형 협력

구분	내용
수요조사, 홍보	• 도서관(주관), 치매안심센터(지원), 지자체·복지기관(협조)
커리큘럼, 강사	• 치매안심센터(주관), 도서관(협의·운영지원)
장소, 자료·교구(회상 키트 등)	• 도서관(주관), 치매안심센터(자문)
참여자 모집·접수(오프라인 포함)	• 도서관(주관), 유관기관(대상자 연계)
상담·선별·연계(필요시)	• 치매안심센터(주관), 도서관(안내·연결)
평가·환류	• 도서관(주관), 치매안심센터(공동해석)

은 도서관이 주관하되, 전문 콘텐츠·강사 지원 및 상담·연계는 치매안심센터가 주관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연계(검진, 상담)는 보건소·의료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넷째,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 최소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강사 지원 범위·횟수·비용, 안전 및 응급 대응 절차, 개인정보·참여 동의 및 자료 보관 기준, 상담·검진·교육 연계 방식(안내, 예약, 의뢰), 홍보 채널 분담, 성과공유 및 정례 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함으로써 협력을 상호 협조가 아닌 운영 가능한 체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평가 및 환류 단계: 성과 측정과 지속가능성 확보

평가 및 환류 단계는 프로그램의 질적 고도화와 지속 운영을 위한 핵심 단계이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치매 진단 및 치료 기관이 아니므로 평가체계는 의료적 효과 측정이 아니라 도서관이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접근성(오프라인 접수 비율, 접수 보조 건수, 신청 이탈), 참여(등록률, 출석률, 중도탈락, 재참여), 학습·인식(치

매 정보 이해, 낙인 인식 변화, 서비스 인지도), 만족·경험(만족도, 권장 의향, 난이도 적정성), 협력·연계(치매안심센터 안내·의뢰 건수, 상담·검진 연계 건수), 운영 효율(사서 부담 체감, 강사 확보 난이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 만족도와 권장 의향은 프로그램의 수용성과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므로 만족도, 재참여 의향, 권장 의향과 같은 정량 조사와 간단 인터뷰 또는 자유응답을 통해 파악한 장점, 어려움, 개선점 등의 정성 자료를 결합하여 측정해야 한다. 이때 회기 종료 후 즉시 수집 가능한 간편 피드백과 종합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단기 환류와 중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셋째, 참여자가 체감하는 인지 유지, 정서적 안정, 사회적 교류 효과는 의료적 진단이 아닌 자기보고형 변화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의료적 평가나 처방 영역은 유관 전문기관과 역할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즉, 도서관은 프로그램 경험의 변화(이해도, 정서, 교류)를 측정하고, 상담, 선별,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연계로 연결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넷째,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신청 절차의 어려움(26.2%) 및 홍보 부족(16.9%)과 같은 의

건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차기 프로그램에서는 오프라인 접수창구 확대, 현장 등록 보조 인력 배치, 큰글자 안내문·간편 신청서 제공 등 접근성 개선안을 표준 운영안으로 포함하고 지역 건강지원 네트워크(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복지기관)를 통한 능동적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반영한다.

다섯째, 도서관의 자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모형 적용 수준을 단계화하여 현실성을 높인다. 즉, 정보제공형(자료·큐레이션 중심), 교육강좌형(전문가 강의, 독서·인지활동 결합), 참여아웃리치형(체험·아웃리치 서비스 포함)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최소 운영요건(공간, 인력, 협력기관, 예산, 자료)을 명시함으로써 도서관이 자신의 역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모형은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의 선순환 구조(준비, 구성, 실행, 협력, 평가)와 역할 분담형 협력이라는 두 축을 통해 이용자 만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공공도서관 치매예방 서비스의 표준 운영 틀을 제공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초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 치매 예방의 핵심 거점이자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이 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치매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 인프라인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치매예방 서비스의 방향을 탐색하고 실행 가능

한 운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치매 관련 서비스·프로그램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 사서와 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요구와 운영 현실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두 집단 모두 공공도서관이 치매예방 서비스 제공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서비스의 우선순위와 제공 방식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 이용자는 참여·체험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을 선호한 반면, 사서 집단은 업무 부담과 도서관 정체성 유지의 관점에서 자료 제공 중심의 접근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를 조정하고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 구성, 실행, 협력, 평가로 이어지는 5단계 선순환 운영 모형을 설계하였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강점을 지닌 공간 인프라, 자료 제공, 홍보 및 접근성 지원 기능을 기반으로 운영을 주관하고,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이 콘텐츠 기획, 강사 지원, 상담·연계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형 협력 구조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전문성을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참여형 서비스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운영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다.

치매예방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도서관이 지역 치매 관리체계의 공식 협력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과 국가 치매 정책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서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시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응대·안전·연계 절차를 포함한 운영 매뉴얼

을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고령 이용자의 참여 장벽을 줄이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치매친화 환경 조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안내·동선·조도·소음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발성 강좌 중심의 운영을 넘어 영국의 메모리 카페 사례처럼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포용적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효과를 높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치매예방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제안된 운영

모형이 향후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데 실무적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특정 지역의 이용자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도서관 관계자와 치매안심센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나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실제 다양한 지역·규모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지·정서·사회적 성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9).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가이드라인.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주영 (2015). 노인성 치매방과 우울증 감소의 활용: 음악치료(민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예술문화학과 한국음악전공.
- 김혜경, 최재성 (2017). 치매노인에 대한 음악치료 국내 연구동향 분석. 예술과 인간, 3(2), 31-48.
-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서울: 국가도서관위원회.
- 도서관법. 법률 제21090호.
- 박수정, 박인혜, 김정기 (2020). 치매예방프로그램(DPP)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균형 및 손기능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14(2), 29-39.
- 박중섭, 박수정, 윤지영, 최경규 (2015).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비치매 여성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신체기능에 미치는 효과: 경로당 이용 대상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3(3), 79-96. <https://doi.org/10.14519/jksot.2015.23.3.07>
- 배경재 (202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노인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3), 199-214. <https://doi.org/10.3743/KOSIM.2021.38.3.199>

- 보건복지부 (2020).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2024).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4.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 선정주 (2012). 치매예방프로그램이 여성독거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양수경, 고보숙, 박정환 (2019). 노인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국내 연구동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 131-143.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31>
- 이병희, 박준수, 김나라 (2011).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 신체적 수행능력, 보행, 삶의 질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2), 307-328.
- 이윤정, 김신미 (2003). 신체적 활동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년학, 23(4), 17-31.
- 이주현 (2015). 치매예방을 위한 색채놀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문화정보정책대학원 색채전공.
- 이지택 (2011). 노인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사전·사후검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추수경, 유장학, 이정렬 (2007).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인지기능저하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7), 1049-1060. <https://doi.org/10.4040/jkan.2007.37.7.1049>
- 하정화, 정은경, 정은석 (2015). 노년기 인지기능 감퇴 정도에 따른 사회 활동 참여의 변화: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1), 5-30. <http://doi.org/10.16999/kasws.2015.46.1.5>
- 한영란, 송미숙, 임지영 (2010). 재가 노인을 위한 집단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이 인지기능,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5), 724-735. <https://doi.org/10.4040/jkan.2010.40.5.724>
- 日本図書館協會 (2016). 図書館における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https://www.jla.or.jp/portals/0/html/lsh/sabekai_guideline.html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n.d.). Library Services for Patrons with Dementia/Alzheimer's.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diversity/services-alzheimer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7).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ersons with Dementia. IFLA Professional Reports, 104. The Hague: IFLA Headquarters. Available: <https://archive.ifla.org/VII/s9/nd1/Profrep104.pdf>
- McNicol, S. (2023). How Libraries Can Support Those with Dementia. Available: <https://www.cilip.org.uk/news/628663/How-Libraries-Can-Support-Those-with-Dementia-htm>

Wisconsin Alzheimer's Institute (2017). Dementia Friendly Libraries in Wisconsin: A Best Practice Guide. 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Medicine and Public Health. Available: <https://wai.wisc.edu/wp-content/uploads/sites/1129/2020/04/librariesguide.pdf>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ae, Kyungjae (2021).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library services for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3), 199-214. <https://doi.org/10.3743/KOSIM.2021.38.3.199>
- Chu, Su-Kyong, Yoo, Jang-Hak, & Lee, Chung-Yul (2007). The effects of a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ADL of elderly with cognitive impair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7), 1049-1060. <https://doi.org/10.4040/jkan.2007.37.7.1049>
- Ha, Jung-Hwa, Chung, Eun-Kyung, & Jeong, Eunseok (2015).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a cognitive decline on older adults' social particip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6(1), 5-30. <http://doi.org/10.16999/kasws.2015.46.1.5>
- Han, Young-Ran, Song, Mi-Sook, & Lim, Ji-Young (2010). The effects of a cognitive enhancement group training program for community-dwelling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5), 724-735. <https://doi.org/10.4040/jkan.2010.40.5.724>
- Kim, Hye-Kyoung & Choi, Jae-Sung (2017). Music therapy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domestic research trend analysis. *Arts and Human*, 3(2), 31-48.
- Kim, Ju-Young (2015). Application of Dementia Prevention and Depression Reduction in the Elderly: Focusing on Music Therapy (Korean Folk Songs).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Lee, Byung-Hee, Park, Jun-Soo, & Kim, Na-Ra (2011).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cognition, physical performance, gait,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in elderly with dementia.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0(2), 307-328.
- Lee, Ji-Taek (2011).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Dementia Prevention Program for the Elderly: Focused on the Pre and Post Test. Master's thesis,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 Lee, Ju-Hyun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lor Play Program for Dementia Prevention.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 Lee, Yoon-Jung & Kim, Shin-Mi (2003).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and ADL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4), 17-31.

Library Act. Law No. 2109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The 4th comprehensive dementia management pl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Medical Center, &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24). Korea Dementia Observatory 2024. Seoul: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9).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the Elderl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Park, Jong-Seub, Park, Soo-Jung, Yoon, Ji-Young, & Choi, Kyung-Kyu (2015). Effects of dementia prevention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physical function in non-demented elderly women in community: Focusing on the elderly in senior citizen cent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3(3), 79-96.
<https://doi.org/10.14519/jksot.2015.23.3.07>

Park, Soo-Jung, Park, In-Hye, & Kim, Jeong-Gi (2020). Effects of dementia prevention program (DPP) on cognitive function, balance, and hand function in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Geriatric and Dementia Occupational Therapy*, 14(2), 29-39.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ies (2024). The 4th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24-2028]. Seoul: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ies.

Sun, Jung-Ju (2012). Effects of Dementia Prevention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ang, Su-Kyung, Ko, Bo-Sook, & Park, Jeong-Hwan (2019). Research trends of dementia prevention programs for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 131-143.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31>

